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iRD Korea

2023 January vol. 319

01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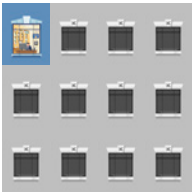
06



14



발행일 2023년 1월 1일
발행인 어수봉
편집인 윤명섭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미디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우선정
글 박소현
전화 051.636.1210



Cover Story

색색의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2023 HRD Korea 1월호는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오랫동안 가치를
 빛어내며 깊어진 숙련기술의 목직한
 빛깔을 담았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
 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HRD)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제작해, 무
 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빛고

H

04 신년사

06 인생의 명장面

심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밝히는 IT강국 대한민국의 새길
 _ 유지대 대한민국명장(정보처리)

10 NCS 돌보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책임지다
 _ 응용SW엔지니어링 직무분석

12 HRD Focus

기업과 학생의 동반성장을 꿈꾸다

14 업그레이드 HRD

HRDK의 새 얼굴, 사내 홍보모델을 소개합니다!

#기술로 #쌓아

R

16 HRDK 인포그래픽

능력을 밝혀주는 국가기술자격

18 HRDK 톡

2023 국가기술자격검정 살펴보기

20 HRDK 이야기

내 인생을 바꾼 국가기술자격

22 미래를 짓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수상작

24 상생스토리

미술로 '다름'을 그려 꿈에 다다르다
 _ 다다름미술엔디자인

#한 단계 #성장하며

D

28 함께 한 걸음

살아있네! 자갈치시장의 맛과 멋 _ 부산 자갈치시장

32 세대공감 비즈니스

MZ세대는 왜 MBTI에 열광할까?

34 뜨는 키워드, 뜨는 직업

이제는 기술도 '알잘딱깔센' _ 선제적 대응기술

#이어서는 #HRDK

K

38 읽어주는 직방

평판 조회, 이직의 새로운 관문

40 청렴 이야기

투명과 청렴의 시대적 함의

42 HRD뉴스

44 독자이야기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까지,
자격증 하나로 시작한 꿈이 더 큰 미래를 꽃피웁니다.
국가기술자격은 숙련기술인이 가진 잠재력을 깨워
기술한국을 이끌어가는 주역을 만들어갑니다.

국가기술자격,
당신의 기술로 도전하세요!

대한민국명장(2022. 8. 30. 기준)

680_명

국가기술자격 취득자(1975년~2021년 총합)

31,944,726_명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월간 HRD KOREA 독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공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물고 온 비대면·디지털 전환의 파고(波高)를 지나왔습니다. 지난해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험자가 몰려 430만여 명이 응시한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했고, 21년 만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5개국에서 개최된 제56회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공단은 ICT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K-디지털 플랫폼 20곳을 통해 국민의 업스킬링(upskilling)을 지원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곳을 선정해 근로자의 리스킬링(reskilling)을 통해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농어촌 등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역사상 최대 규모인 8만 8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도입했고, 코로나19로 꺾였던 해외 취업을 재개하여 우리 청년 5천여 명이 미국, 일본 등 77개 국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원년(元年)이었습니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CBT(Computer Based Test) 전환을 완결하였으며, '모바일 자격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 HRD4U정보시스템에 훈련정보 통합DB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HRD 종합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규제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제'도 시범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사회변화로 어려움 속에서도 공단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비대면과 디지털은 일터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공정한 산업전환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공단의 사명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우리 공단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금년

에는 3가지 키워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공단은 “현장”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답은 모두 “현장”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복잡한 규정이나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훈련기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능력개발전담주치의Dr.HR’ 등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공단 직원들이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전문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전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올해는 공단 내부 경영관리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디지털 혁신” 성과 창출을 본격화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심어둔 디지털 전환의 씨앗이 움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실행할 것입니다. 디지털시험센터DTC 확대를 비롯해 “출제-시행-채점” 국가자격시험 전 프로세스에 대한 AI 기반 채점 등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여 수험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HRD4U시스템을 한층 발전시켜 기업훈련지원 종합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스마트·디지털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급격한 환경변화로 더욱 중요해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면서 “L”Lay off·해고의 공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미스매치”가 더해져 기업은 구인난, 구직자는 취업난으로 모두

가 힘든 상황입니다.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키우고, 친환경·디지털 등 기업의 산업전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 11만 명을 적시에 도입하고, 청년의 해외취업과 글로벌 경력개발 등 일자리 지원이라는 공단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가 공단에 부임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부임 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며 공단 직원 모두가 혁신과 발전의 잠재력Potential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구독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어수봉



#사람으로 #빛고
인생의 명장면



IoT 융합개발자
Work Shop

IoT는 삶의 매일매일이 모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밝히는

IT강국
대한민국의 새길



대한민국명장(정보처리)

(주)씨디에스 대표

유지재

2022년, (주)씨디에스의 유지대 대표는 또 하나의 ‘최초’ 타이틀을 얻었다.

이번에는 정보처리 직종 분야의 첫 번째 대한민국명장으로서, 끝없는 도전정신과 후진 양성이라는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그를 만나보았다.



정보처리 직종 1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회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전 8기로 도전했던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어 흥분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 또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늘 직원과 학생들에게 목표를 명확히 가지라고 주문하는데요. 명장을 향한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도전정신의 결과를 몸소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큼니다. 그간 감사하게도 강원 지역 최초의 기능한국인, 우수숙련기술자 및 정보처리 직종 1호 대한민국명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10년만에 선정된 명장이라 강원도지사와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숙련기술인으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IT S/W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씨디에스의 창업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춘천기계공고 금속공업과를 졸업하고 취업도 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상 자원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대 후 취업 자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 당시 검사였던 형님의 조언을 듣고 정보통신 분야로 진로를 바꾸게 됐어요. 그렇게 아무 지식도 없이 지방 전문대학 전자계산과에 입학해, 차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학업에 열중했죠. 재학 중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졸업을 일주일 앞두고는 삼보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부에 특채로 입사해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IMF가 터진 1997년, 10년 동안 근무했던 삼보컴퓨터를 그만둔 저는 여러 스카웃 제의를 마다하고 창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한 길만 건넌다는 일념이었죠. 그렇게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서 씨디에스를 설립하게 된 지 올해로 벌써 23주년이 됐네요.

(주)씨디에스는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야로서 개발의 당위성, 기획, 개발, 서비스,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항상 ‘안 되는 건 없다’라는 도전정신과 벤처정신으로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또한 씨디에스는 ‘HUMANITY- TECHNOLOGY-INNOVATION’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업체를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5개실 1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운영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 중이죠. 강원도 내 한글·어도비·MS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공식 파트너사로써, R&D 솔루션개발과 IT전문인력양성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감소한 매출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마케팅 계획을 재정비하고 신기술 발굴에 매진한 결과, 2022년엔 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씨디에스에서는 R&D 기술 개발과 온라인 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해 성과보상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를 통해 직원들은 끊임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특허출원 등의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가청 음파통신기술을 활용한 'BIG MOVER' 개발로 기술 혁신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BIG MOVER는 비가청 대역, 즉 사람이 듣지 못하는 영역의 주파수(KHz)의 음파에 데이터를 담아 송·수신하는 음파통신기술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특정 장소를



찾은 방문객의 데이터를 음파 IoT Kit로 수집하여 송·신·시각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선호도, 동선, 이용 시간, 콘텐츠 참여도 등 필요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이죠. 또한 지난해에는 강원도의 디지털 특화 서비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데이터 거래 플랫폼과 지능형 행정정보서비스 개발을 수행했는데요. 2023년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공공데이터와 2백여 개의 행정서비스 기능을 연계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명장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과,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한 일들과 그 결과물이 가장 자랑스롭습니다. 씨디에스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양한 재직자 참여 학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IT 기술전수를 위해 3년째 사업주훈련을 주관해 참여하고 있죠. 또 지역 청년 이탈을 예방하고 지방기업 취업 연계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개소하기도 했

어요. 저 또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정보통신 분야 2기와 12기로 활동하며 특성화 고교생에게 앱 개발 실습, 지방 중소기업에 기술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오로지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아내 그리고 가족들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의 목표와 꿈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들이 IT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재직자, 실업자들을 위한 훈련과정과 영상을 개발하고, 경력단절여성, 초·중·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구인구직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여 년 전 IT 황무지였던 강원도에서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각오로 시작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늦은 밤 모니터 3개가 내뿜는 열기 속에 홀로 기술 개발과 기획, 프로그램 개발에 매달리던 그때의 열정이 지금도 식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후배와 직원들에게 정보처리 분야 개척자로서 도전정신과 벤처 정신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5의 혁신기술과 제6의 신기술혁명을 준비하는 자세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후세에게 신기술 개발 제품 및 서비스를 전수하려 합니다. 대한민국명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며 기술한국 발전에 제가 가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유지대 명장의 명장面

“후진 양성을 위한 값진 시간들”

“IT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후진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을 개소했고 다양한 인력 풀을 활용해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개발자로서 꿈과 의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부심 속에서도 잃지 않는 초심”

“23년의 업력 속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제 방을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표창장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을 다잡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책임지다

응용SW
엔지니어링
직무분석

응용SW엔지니어링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설계·구현 및 테스트, 배포, 버전관리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응용SW엔지니어링 직무에 대해 알아보자.



#응용SW엔지니어링 NCS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수준
1 요구사항 확인	5
2 데이터 입출력 구현	5
3 통합 구현	5
4 정보시스템 이행	5
5 제품소프트웨어 패키징	5
6 서버프로그램 구현	5
7 인터페이스 구현	5
8 애플리케이션 배포	3
9 애플리케이션 리팩토링	6
10 인터페이스 설계	6
11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석	7
12 기능 모델링	6
13 애플리케이션 설계	6

능력단위명	수준
14 정적모델 설계	6
15 동적모델 설계	6
16 화면 설계	5
17 화면 구현	3
18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5
19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3
20 소프트웨어공학 활용	6
21 소프트웨어개발 방법론 활용	6
22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3
23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2
24 응용SW 기초 기술 활용	3
25 개발자 환경 구축	2
26 개발 환경 운영 지원	2



출처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
NCS 및 학습모듈 검색

20. 정보통신 > 01. 정보기술 >
02. 정보기술개발 > 02. 응용SW엔지니어링

서버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응용SW엔지니어링의 능력단위 가운데 서버프로그램 구현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필요한 능력단위 요소는 ① 개발 환경 구축하기 ② 공통 모듈 구현하기 ③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기 ④ 배치 프로그램 구현하기가 있다. 다음은 ① 개발 환경 구축하기에 필요한 수행준거와 KSA(지식·기술·태도)다.

분류번호 2001020211_19v5

능력단위 명칭 서버프로그램 구현

정의	서버프로그램 구현이란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구성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를 활용하여 공통모듈, 업무프로그램과 배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능력이다.
요소	2001020211_19v5.1 개발환경 구축하기
수행 준거	<p>1.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개발환경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할 수 있다.</p> <p>1.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정하여 개발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p> <p>1.3. 사전에 수립된 형상관리 방침에 따라, 운영정책에 부합하는 형상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p> <div> <div>지식</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환경 구축 방법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해 *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 설계 산출물 이해 * 데이터베이스 이해 * 네트워크 이해 </div> <div> <div>기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파일러 사용 능력 *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도구 활용 능력 *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능력 * 협업도구 활용 능력 * 형상관리 도구 활용 능력 *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활용 기술 * 프로그래밍언어 활용 능력 * 보안도구 활용 능력 </div> <div> <div>태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개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 * 개발 수행에 요구되는 표준을 준수하려는 태도 *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의지 * 산출물 완성도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 개발 팀원 간의 원활한 협업을 추구하는 태도 *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감 * 개발환경 개선 의지 </div>

기업과 학생의 동반성장을 꿈꾸다

2022년 서울권역
일학습병행 통합 잡마켓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도제학생과 참여기업에게 채용의 장을 마련하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잡마켓! 지난 11월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을 거쳐 12월 서울권역까지, 2022년 하반기 일학습병행 잡마켓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겨울 추위마저 녹인 '2022년 서울권역 일학습병행 통합 잡마켓'의 뜨거웠던 열기를 전한다.





일학습병행 도제학생과 참여기업 채용의 장

지난 12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 서울권역 일학습병행 통합 잡마켓’ 행사가 열렸다. 공단은 학생과 기업 상호 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이루어져 학생이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잡마켓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도제학생과 기업이 일학습병행 시작 전 상호 충분한 탐색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과 학생 간 다대다(多對多) 또는 개별면접 후 기업의 현장을 견학하거나 실제 직무를 사전에 체험하는 등 서로가 원하는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잡마켓은 그간 학교별로 개최해 학생과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채용했으나, 올 상반기부터는 지역사회에서 일학습병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우수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직종 및 권역별로 병행 개최하고 있다.

체험 이벤트와 즐길 거리도 풍성

8월부터 이어진 서울권역 일학습병행 통합 잡마켓 준비의 대장정은 약 4개월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제학교 및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대학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59

개의 기업과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잡마켓 행사는 참여 기관 및 기업의 홍보 동영상 상영과 식전 퀴즈대회로 시작됐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개회사 및 내빈 축사, 퍼포먼스 및 사진촬영 등을 진행하며 채용의 대축제를 기념했다. 이번 잡마켓에는 도제학교 부스, P-TECH 부스, 유관기관 부스 등 40여 개의 체험부스가 설치되었으며, 각 부스에서는 기관별 홍보와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부스 체험 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투어를 실시하고, 상품권 등 경품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한편 일학습병행 잡마켓 면접존에서는 242명의 도제학생이 59개의 기업과 면접을 진행했다. 취업·진로 및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만의 이미지 메이킹 특강과 취업진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신뢰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잡마켓 인생 사진관, 퍼스널 컬러 컨설팅 등 체험 이벤트도 이어져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일학습병행 잡마켓은 직업교육훈련과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다. 공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수준 높은 숙련기술자이자 지역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HRDK의 새 얼굴, 사내 홍보모델을 소개합니다!

최초, 그리고 최고!
HRDK의 얼굴로서 고객과 가까이 소통하게 될 10인이 선발됐다.
주체할 수 없는 끼와 능력으로 공단 홍보를 책임질
정예군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제1기 HRDK 사내 홍보모델 위촉

공단을 대표하는 사내 홍보모델이 최초로 선발됐다. 내부공모와 외부심사를 통해 최종 위촉된 인원은 총 10명. 아나운서 2명, 성우 3명, 모델 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내년부터 2년간 공단의 대내외 오프라인 행사, 캠페인 음원 녹음, 사내외보 및 광고 촬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모델은 입사 2년 차 20대 신입직원부터 40대 워킹맘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선발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로써 폭넓은 고객층에 친근함과 신뢰감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5일 위촉식에서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단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사내 홍보모델을 처음 모집했다”며, “앞으로 사내 홍보모델을 통해 고객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사업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부캐(부캐릭터)’ 문화 등 자아를 실현하고 관심 분야에 몰두하는 사회와 직장 분위기 속에서, 공단 사업과 사내 홍보모델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본다.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사내 홍보모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HRDK On-air 사내 홍보모델 MINI INTERVIEW

홍보모델로서 이루고 싶은 일은?



- 홍** 공단에 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공단의 다양한 모습을 내보이고, 고객들의 어려움을 잘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 윤** 많은 분이 공단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공단이 하는 일을 잘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습니다.
- 김** 저희의 활동을 보고 공단 구성원들이 추후 2기, 3기 홍보모델을 모집했을 때 '나도 해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이** 공단의 슈퍼스타가 되어 보겠습니다.

홍보모델이 생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랑거리는?



- 이** 여러분의 경력을 책임져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홍** 지사가 여러 지역에 있어서, 공단에 취업하면 거주지와 가깝게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윤** 능력개발, 능력평가, 해외취업, 외국인고용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공단의 제일 큰 장점은... 제가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새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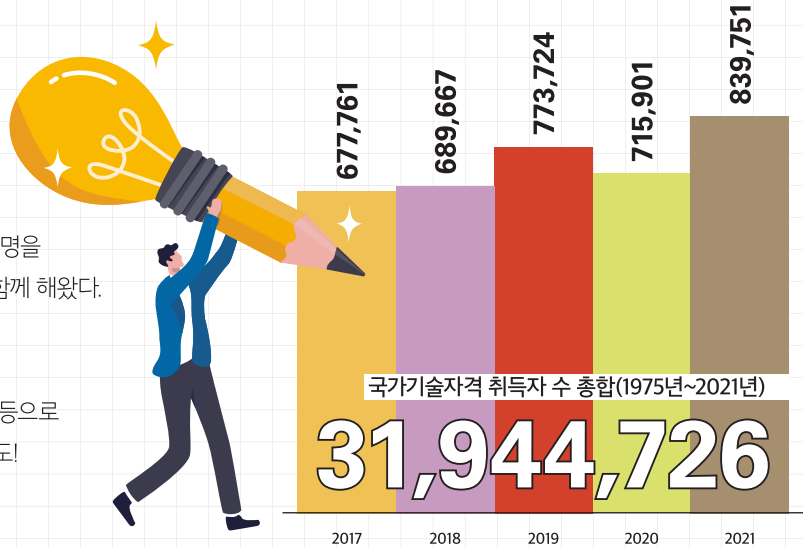


- 이** 앞으로 40주년, 80주년까지 파이팅입니다.
- 김** 공단과 함께 한지 4~5년이 됐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즐거웠다는 거겠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재밌게 일하고 싶습니다.
- 홍** 한국산업인력공단 덕분에 배수를 탈출하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 윤** 공단으로 이직 후 이전과는 많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무 속에서 배우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저를 성장시켜준 공단에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는 자격증시대 능력을 밝혀주는 국가기술자격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국가기술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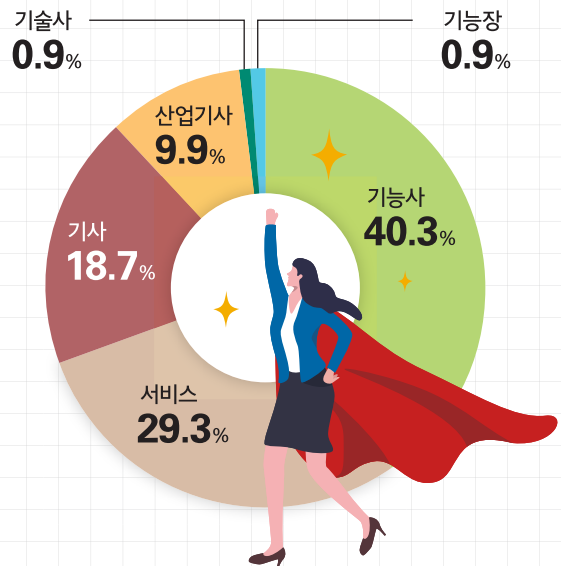
1975년 시작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2021년까지 취득자 총합 31,944,726명을
배출하며 국민의 직업능력 강화와 함께 해왔다.
매년 응시자 및 취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CBT 방식의 디지털 시험 확대 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기술자격제도!
그 현황과 트렌드를 살펴본다.



[2021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수]



[2021년 등급별 응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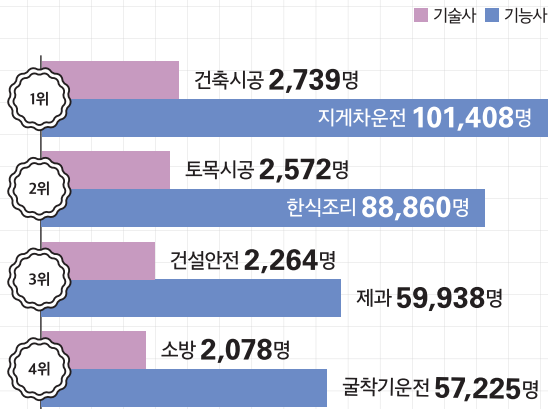


국가기술자격을 살펴보면 트렌드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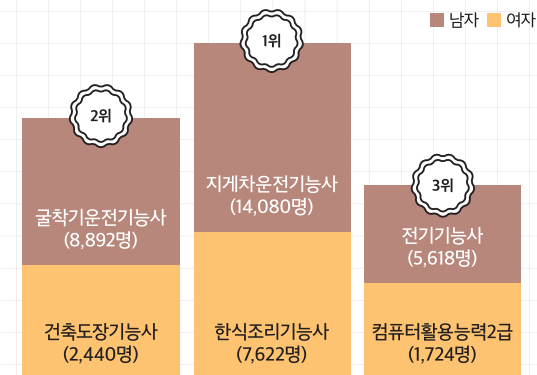
국가기술자격 중 새롭게 신설된 종목, 응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종목 등을 살펴 일자리 트렌드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 이에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예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국가기술자격통계를 제공 중이다.



[2021년 자격 등급별 최대 응시 종목]



[50대 이상이 많이 취득한 5개 종목]



[2021년 주목받은 자격(필기 응시자 수 기준)]

I 제과·제빵 분야

122,950명

역대 최고치 기록

I 빅데이터분석기사

14,900명

2021년 첫 시행

I '안전' 관련 종목

41,704명

산업안전기사 응시자

25,969명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



국가기술자격통계를 더 살펴보고 싶다면?

큐넷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2022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묘년 새해, 한 해 목표로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는 분이라면 주목!
지금부터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일정을 살펴보고 자격증 준비를 시작합시다.

그간의 노력, 값진 결과로! 2023 국가기술자격검정 살펴보기

수험원서 접수 방법

수험원서 접수 시간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

원서접수 분산 및
유의사항

홈페이지(www.Q-net.or.kr)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

해당 발표일 09:00

기술사

-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2. 20~2. 23, ② 3. 21~3. 24에 2번 접수하며
2021년 제123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2. 20~2. 23에만 원서접수 가능
- 기술사 제131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9. 5~9. 8, ② 10. 17~10. 20에 2번 접수하며
2021년 제125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9. 5~9. 8에만 원서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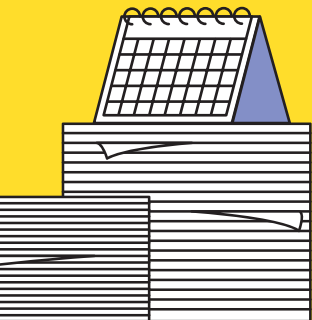
기사·산업기사·서비스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① 1. 10~1. 13(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 2월 시험
시행, ② 1. 16~1. 19(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 자) 3월 시험시행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
- 응시자격기준일(시험일)을 고려하여 기사 제1회 필기시험은 수험자의 학적 변동·
경력 등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확인 후 원서접수 시 시험일을 선택하시기 바람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에서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 종목에 따라 시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 및 종목별 시행 회를 확인하기 바람.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 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QR 코드를 인식해보세요!
자세한 일정과 유의사항은
큐넷(Q-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정기검정 시행 일정

등급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 결정)	면접/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 제외)	시험 시행	합격 (예정)자 발표		원서접수 (휴일 제외)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기술사	제129회	1. 3~1. 6	2. 4	3. 15	2. 6~3. 24	2. 20~2. 23	4. 15~4. 25	5. 19
						3. 21~3. 24		
	제130회	4. 10~4. 13	5. 20	6. 28	5. 22~7. 7	7. 3~7. 7	8. 5~8. 15	9. 8
	제131회	7. 24~7. 27	8. 26	10. 11	8. 28~10. 20	9. 5~9. 8 10. 17~10. 20	11. 11~11. 21	12. 15
기능장	제73회	1. 9~1. 12	1. 28	2. 8	1. 30~2. 17	2. 20~2. 23	3. 25~4. 7	1차: 4. 19 2차: 4. 26
	제74회	5. 22~5. 25	6. 24	7. 5	6. 26~7. 14	7. 17~7. 20	8. 12~8. 25	1차: 9. 13 2차: 9. 20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제1회	1. 10~1. 13 *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자	2. 13~2. 28	3. 21	2. 13~3. 31	3. 28~3. 31	4. 22~5. 7	6. 9
		1. 16~1. 19 * 3월부터 응시 자격을 갖춘자	3. 1~3. 15					
	제2회	4. 17~4. 20	5. 13~6. 4	6. 14	5. 15~6. 23	6. 27~6. 30	7. 22~8. 6	1차: 8. 17 2차: 9. 1
	제3회	6. 19~6. 22	7. 8~7. 23	8. 2	7. 10~8. 11	9. 4~9. 7	10. 7~10. 20	1차: 11. 1 2차: 11. 15
	제4회	8. 7~8. 10	9. 2~9. 17	9. 22	9. 4~10. 6	10. 10~10. 13	11. 4~11. 17	1차: 11. 29 2차: 12. 13
기능사	제1회	1. 9~1. 12	1. 28~2. 1	2. 8	해당 없음	2. 20~2. 23	3. 25~4. 7	1차: 4. 19 2차: 4. 26
	제2회	3. 13~3. 16	4. 8~4. 12	4. 19		5. 8~5. 11	6. 10~6. 23	1차: 7. 5 2차: 7. 1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 일반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불가				5. 15~5. 18	6. 24~6. 30	7. 12
	제3회	5. 22~5. 25	6. 24~6. 29	7. 6		7. 17~7. 20	8. 12~8. 25	1차: 9. 13 2차: 9. 20
	제4회	8. 28~8. 31	9. 19~9. 24	10. 11		10. 16~10. 19	11. 18~12. 1	1차: 12. 13 2차: 12. 20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검증받고
취업과 창업, 나아가 인생 이모작까지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2022년 국가자격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날아온
희망찬 이야기를 모아봤다.



내 인생을 바꾼 국가기술자격



2022년 국가자격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성명 김영진

소속 (주)세기리텍 부장

취득 연도 1998년

종목 전기기사

83개 자격증으로 쌓아 올린 내 인생의 베타팀!

저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해 39년을 근무했고, 전기기능장 자격증 등으로 학점을 채워 학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불황으로 희망퇴직을 하였으나, 전기기사 자격증 덕분에 2주 만에 신중년 재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기능장 3개, 기사 3개, 산업기사 4개, 기능사 20개, 기타 전문자격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취득한 공인기술자격만 83개가 됐네요. 덕분에 각종 매스컴에서 화제의 인물로 보도되기도 했어요. 이 같은 결실은 산업현장에서 긴 세월 동안 주경야독하면서 취득한 자격증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국가자격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금상

성명 장민철 **소속** 법제처 사무관
취득 연도 2021년 **종목** 정보관리기술사

제2의 인생을 이끌어준 국가기술자격증

40대 중반까지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탄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해답을 준 것은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증이었어요. 약 6개월 간의 피나는 학습과 노력을 거쳐 제124회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했고, 단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 저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겨 국민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수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술사 자격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길을 완주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결코 없었을 거라 단언합니다.



2022년 국가자격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은상

성명 전상진 **소속** 공군 군수사령부 제85정밀표준정비창
취득 연도 2014년 **종목** 전자기기기능장

자격증으로 콤플렉스를 극복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더듬는 아이였어요. 힘든 사춘기를 보냈고, 커서는 취업도 힘들었죠. 30대 중반, 미래를 고민하다 공무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겸하며, 매일매일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준비한 끝에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사 등을 취득했고, 국방부 9급 전자직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20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6급으로 진급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말을 더듬었나 싶을 정도로 매사에 자신이 붙고 말하는 것도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됐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국가기술자격증이 앞으로도 저처럼 소심하고 자신 없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국가자격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동상

성명 어재동 **소속** (주)에스앤디 이엔지 대표이사
취득 연도 2007년 **종목** 기계제작기술사

기술사로 100억 기업을 만들다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리라’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청년이었던 저는 기계가공기능장 취득을 시작으로 창업의 꿈을 키웠고, 지금은 기계제작기술사로서 어엿한 100억 매출의 정밀가공 기업인 (주)에스앤디 이엔지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큰 꿈인 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여 노년기에는 재능기부 및 봉사를 하는 등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국가기술자격증의 보유가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지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증거로서 제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보물과 같았습니다.



2022년 국가자격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동상

성명 신우철 **소속** 한국전력공사 대리
취득 연도 2022년 **종목** 발송배전기술사

기술사 취득, 누구나 가능하니 도전하세요!

전기에 대한 흥미를 시작으로 꿈꾸던 직장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지만, 이후는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업무 자체도 어렵고, 전문가로 인정받기엔 근무 기간 역시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던 중 어느 교육에서 대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발송배전기술사 취득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필기를 5수 만에 합격하고, 면접까지 동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사 자격은 기사 취득 후 4년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어려워 보여도, 실무 과정에서 한 번쯤은 본 설비와 이론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도전하면 이뤄집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꿈일 뿐입니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대상 수상작

수능 6등급에서 캐나다 이자카야 오너가 되기까지



문득 지금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진열대에 놓인 라면처럼 그저 언제 선택받을 지도
모르는 채, 운에 맡겨진 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반향’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내 방식으로.



※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각색하여 짧게 전합니다.

자세한 수기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에서 확인하세요!



영어 6등급이 컬리지 장학금을 받기까지

말년 휴가 복귀 후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학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입대 전 조리학과를 전공했고, 군에서도 조리병으로 근무했기에 취업 방향 역시 자신 있는 ‘요리’ 분야로 정했다. 졸업 후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이 가능한 캐나다를 최종 목표로 도전은 시작됐다.

그리고 1년 뒤, 2015년 1월 18일 새벽. 그토록 원하던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지만, 눈앞에 두려움부터 다가왔다. 입학 일정상 6개월 만에 영어를 공부해 컬리지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영어 6등급 받은 사람에게 컬리지는 에베레스트산 같은 존재였다.

다행히 목표한 시점에 조지브라운 컬리지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예습과 숙한 질문 등, 적극적인 학업과 동기들의 도움을 받은 결과 조금씩 수업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니 듣는 것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학교 근처 이자카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실습이 있는 날은 아침 7시에 수업을 시



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일을 하고 바로 학교에 가야 했다. 시간이 흐르자 영어도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니 학점 3.8(4점 만점), Dean's Honor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컬리지 전체 학생 중에서 100인 에게만 수여하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다.

성장의 공식, 공식의 반복

2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2016년 졸업 후 토론토 내 유명한 레스토랑 20여 곳에 이력서를 돌렸는데, 연락 온 곳은 단 한 군데였다. 면접에서 만난 셰프는 내게 팬을 잡을 수 없을뿐더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파와 아스파라거스를 손질하는 일만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주 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일만 하며 지냈다. 같이 일을 시작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지쳐 그만두었지만 오기로 버텼고,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가드망제(샐러드를 다루는 스테이션) 파트의 쿡 한 명이 몸이 아파 나올 수 없게 되자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나의 열정과 태도 덕분인지, 셰프는 그 후 내게 최고급 푸아그라 손질하는 일을 맡겼다. 1그램도 낭비 해선 안 되는 중요한 일이라 책임도 컸으며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3년 뒤 나는 20명의 주방 쿡 중 서열 5위가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이자카야 오너가 되다

좀 더 큰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수셰프 바로 밑 직급으로 이직했으나, 2020년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는 모두에게 가혹했다. 나 역시 직장을 잃게 됐다. 하지만 위기가 목표를 앞당겨줄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2021년 3월, 나는 두 번째 인생을 걸고 또 한 번 배팅

을 하기로 했다.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토론토 다운타운에 드디어 내 가게를 오픈한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상상이 그 정도로 참담히 깨질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었다. 맛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같은 요리 외 영역까지 컨트롤해야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행위라는 생각에 즐거웠다. 가게 매출이 안정화된 지금, 나는 이제 라이프 밸런스를 적절히 유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스스로를 믿고 여유 있게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요즘 주위에 좋은 대학 좋은 스펙에 이미 준비된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에 반해 나는 수능 평균 6등급에 평균도 아닌 그 이하였다. 다만 나의 경우 나만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선택을 믿어 왔다.

극한이라고 여겼던 두려움은 생각보다 이겨낼 만했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창피함은 생각보다 큰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늘 더디게 오는 것 같았던 성장은 생각보다 크고 대단했다. 내 이야기를 보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 자극받고 더 잘 해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길 바란다.



미술로 ‘다름’을 그려 꿈에 다다르다



다다름미술앤디자인의 이정희 대표가 쓴 시에는 그간 걸어온 길이 오롯이 담겨있다.

‘내가 없어도 네가 살 수 있게 널 위해 싸우겠다’는 그의 첫 시와 ‘꿈으로나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열여덟 번째 시의 구절처럼 노력은 결국 빛나는 결실로 돌아왔다.

미술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장을 지원 하는 다다름을 찾아 그 따스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발달장애인 전문 미술교육기관인 다다름미술앤디자인(이하 다다름) 어떻게 설립되었나요?

다다름을 설립하기 한참 전부터 저는 장애인 부모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아들인 동규가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아이가 여섯 살 때쯤 그림을 접하고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집중해서 그림만 그리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 아이가 자라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아가 그 좋아하는 일이 직업으로까지 연결되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꿈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이후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개인전도 열어주고, 교육도 시키고자 했어요.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을 찾는 게 절대 쉽지 않았죠. 개인 미술치료 선생님도 찾아봤지만, 수업보다는 심리 치료의 느낌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 이런 지난날의 경험이 ‘다다름’을 시작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저와 제 아이는 못 누렸지만, 앞으로 다른 발달장애 아이들은 눈치 보지 않고 미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죠.

다다름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다다름은 발달장애인 전문 미술교육기관으로, 발달장애의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 그룹수업을 지향합니다. 다다름에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미술 전공자예요.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 처음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미술 수업은 더 편견 없이 그리고 자유롭게 진행해주고 계세요.

또한 다다름은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경제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전문 화가나 디자이너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작가의 그림을 활용해 머그컵, 에코백, 앞치마 등 다양한

reum

#상생스토리

매월 상생스토리에서는
공단과 PRESG 업무 협약을 맺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들을 응원해주세요.

dadareum

다다름미술앤디자인(주)

대표자 이정희

업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사업 장애인 미술교육지원,
디자인 제작 및 제품 판매,
작품 전시 및 판매

본사 울산 남구 월평로 67, 303호
T. 052-265-3004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판매 중이에요. 그 밖에도 소속 작가들 또는 교육생들의 전시회를 열고, 공모전 참여나 외부 강의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술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 선생님들은 교육생의 작품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요. 그 순간 창의력이 죽어버리거든요. 교육생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건 가능하지만, 결과물을 내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대신 해주는 일은 결코 없어요. 아무리 느리고 서툴러도 오롯이 교육생들이 직접 그려내는 거죠.

그렇다고 결과나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 저희 교육생들이 참여한 공모전 결과를 살펴보니 43번의 수상을 했더라고요. 한 대회에서는 수상자 약 20명 중 7명이 다다름 학생일 정도였죠. 모두 다다름에서 수업을 들으며 그린 작품들이었고, 교육생 각자의 힘으로 해낸 결과라 더 의미 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두 명의 발달장애인을 정직원으로 두고 있어요. 모두 다다름의 미술 수업을 듣던 교육생이었죠. 이분들은 작품 활동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함께해주고 있어요. 이찬희 선생님은 그림도 잘 그리지만 클레이를 정말 잘 만들어요. 다소 거칠고 두서없던 작업을 다다름에서 공부하며 다듬어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강의도 진행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두 명의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보조 선생님과 함께 그들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교육을 이끌어나가고 있어요.

다다름을 운영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지난 9월, 교육생 다섯 명이 케이유엠 유한책임회사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취업이 확정된 그때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 같아요. 다다름의 궁극적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 즉 미술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정말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나’ 싶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늘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회를 할 때마다 살펴보면 반응이 참 좋아요. 방명록도 전부 보관 중이에요. 관람객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아 눌러 써주신 글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죠.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이 있다면요?

저는 ‘발달장애인 제품이니까 사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품질이에요. 국내 제작이 안 되는 한두 품목을 제외하고는 재료도 모두 국산품을 이용해요. 영세한 사회적기업으로서 대량 제

작이 힘들다 보니 단가는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질에 대한 것만큼은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매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품질이 안 좋아서 사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듣고 싶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다름은 사회 환원 활동에도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주로 ‘받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보다 한 차원 높게, 발달장애인도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김호균 선생님이 장애인 복지기관에 클레이 강의 를 나가고 있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작가와 교육생이 만든 핸드페인팅 도자기 94점을 울산적십자사에 기부 하기도 했어요.

지금껏 저희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매출과 판로 개척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관심은 다다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생협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는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인식해보세요!



#한 단계 #성장하며
함께 한 걸음

살아있네! 자갈치시장의 맛과 멋



부산 자갈치시장



어떤 지역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장에 가야 한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
싱싱한 해산물과 생생한 삶의 현장감까지
느낄 수 있는 곳,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눈도 입도 즐거운 겨울 나들이를 즐겨보자.

부산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시장의 캐치프레이즈처럼 투박하지만 인심 좋은 상인들이 있는 이곳. 부산의 원도심, 중구 남포동과 서구 충무동에 걸쳐 위치한 자갈치 시장이다. 부산 시내에서 만나는 해산물이라면 으레 자갈치시장에서 온 것이라고 할 만큼 부산의 맛을 책임지는 곳이자, 지역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한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다.

자갈치시장은 인근의 국제시장 그리고 부평강통시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자, 한국 최대 어시장 중 하나다. 자갈치라는 이름은 충무동 로터리까지 뻗어있던 자갈밭을 자갈처라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남빈해수욕장으로 이용하던 곳이었으며, 1922년 부산어업협동조합이 이곳에 건물을 짓고 수산물 위탁판매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근대적 시장이 형성되었다.

지금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된 것은 2006년의 일.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상인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수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회 센터, 오락거리까지 즐길 수



1. 자갈치시장 수산물시장
2. 바다에서 바라본 자갈치시장
3. 수조를 채우는 다양한 어종
4. 회센터에서 즐기는 푸짐한 한 상



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현재는 근대화된 어시장이 480여 개의 점포를 형성하며, 주로 대구·청어·갈치·조개·해조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자갈치시장의 맛

자갈치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활어와 갑각류 종류는 300여 종으로, 마치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가끔은 대왕오징어, 개복치, 청상아리 등 희귀 어종을 만나는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것도 이곳만의 매력. 자갈치시장에서 맛보는 해산물이 유난히 더 맛있는 이유는 신선함에 있다. 어선이 들어오자마자 활어를 도매해 들여오니 가격도 싸고 싱싱하다.

또한 바닷물을 바로 끌어와 정화해서 쓰는데, 수조에 받아만 두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보내 해산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도 훨씬 덜하다고 한다. 1층에서 이렇게 싱싱한 생선회를 직접 보고 골라 2층의 일명 ‘초장집’에서 장만해준 회를 곧바로 맛볼 수 있다.

저렴한 차림비로 푸짐하고 맛깔난 밑반찬을 함께 즐길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생선회 외에도 특별한 전복코스요리, 이색적인 대게·랍스터회 등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취급 중이다.

자갈치시장의 멋

늘 활기가 넘치는 자갈치시장 구경을 마무리했다면 1층 시장 앞으로 나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시설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다. 뒤편의 테라스에서 일몰이 내려앉은 남향을 바라보는 운치가 일품이다. 옥상 전망대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진다. 이곳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식 장소가 되어주는 친수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윤용하의 ‘보리밭 노래비’. 참담한 전쟁 속 희망을 주고자 만들어진 ‘보리밭’은 윤용하가 1951년 종군 작곡가로 활동할 당시 이곳 자갈치시장에서 박화목 시인과 함께 구상한 곡이다. 보리밭 노래비는 자갈치아지매 석상과 함께 이 공간에 소박한 이야기를 더해준다.

한편, 부산의 남향 일대를 관광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자갈치 크루즈를 타고 원도심부터 태종대 해안 절경까지 부산의 해상 풍경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함께 둘러보면 좋은 동네방네



영도대교

도개행사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1934년 개통된 국내 유일의 도개교다.
매주 딱 한 번,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15분간 도개된 영도대교를 감상하고 사진을 남기는 명소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도개 행사는 2022년 6월 재개되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개장한 상설 야시장이다.

시장 길목 양옆과 가운데에 수십 개의 포장마차형 상점들에서 지역 특유의 주전부리와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뜨끈한 유부전골과 옛날 통닭이 인기다.

부평강통야시장

영업시간 : 저녁 7시 30분~11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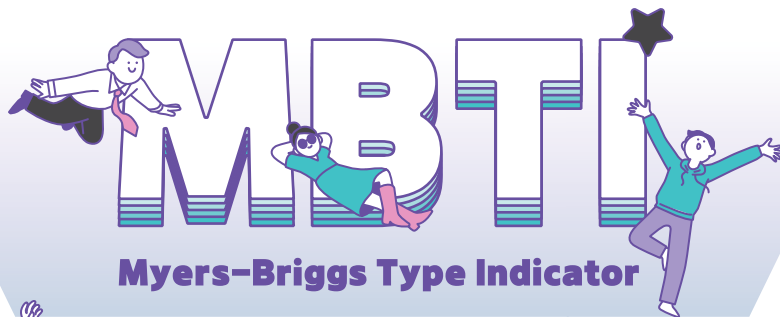
부산 다이아몬드 타워

영업시간 : 오전 10시~밤 10시

1973년 완성된 부산타워를 2021년 전면 재단장하여 개장한 부산 다이아몬드 타워. 부산 중구 광복동 용두산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부산향을 조망할 수 있는 전

망대에서 화려한 야경과 함께 이를 배경으로 한 불꽃 맵핑쇼까지 즐길 수 있다.

MZ세대는 왜 MBTI에 열광할까?



요즘 사람들은 인사말처럼 으레 묻곤 한다.
“혹시 MBTI 유형이 어떻게 되세요?”
MBTI는 더 이상 MZ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녀노소 활용할 수 있는 소통방식,
MBTI 성격유형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관계의 도구, MBTI

MBTI는 미국의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그의 모친인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가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뉘, E(외향)↔I(내향), S(감각)↔N(직관), T(사고)↔F(감정), J(판단)↔P(인식) 등 네 가지 선호 지표를 통해 표현해준다. 한 마디로 사람들 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람들이 MBTI에 열광하는 무엇일까? MBTI를 알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개인의 특징을 중요하게 여기는 초개인화 시대에 MBTI가 유행하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MBTI 유형 분류

E 외향	단체, 개방	← 에너지 방향 태도 →	개인, 내면	I 내향
S 감각	현실, 경험, 정확	← 인식 기능 정보 수집 →	미래, 가능성, 신속	N 직관
T 사고	원칙, 논리	← 판단 기능 의사 결정 →	관계, 협조	F 감정
J 판단	계획, 목적성	← 생활 양식 대처 방식 →	자율, 융통성	P 인식

MZ는 스스로를 알고 싶다

MZ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적성을 찾는 일, 진정한 나를 찾는 일 등 스스로 내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입받으며 자란 세대다. 또한 일상의 영역에서 풍요를 넘어 과다할 정도로 선택지가 많은 세대였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흔들리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자신의 알 기회는 부족했다. 이런 이유에서 MZ세대는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MBTI를 비롯, 각종 성격 유형테스트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몰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MBT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첫 번째, 대화의 소재로 삼는다.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쉽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나를 알리는 셀프 브랜딩 도구로 활용한다. MBTI를 통해 내 생각과 생활 방식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다. 세 번째,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녹여낸다. 검사 결과로 밝혀진 나의 특징점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MBTI에는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 성격 유형도 없고,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성세대가 사주와 별자리점에 흥미를 느꼈듯, MZ세대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의하고 싶어 뿐이다. “나는 파워 ‘E’야!”, “나는 E 같은 ‘I’야” 등 가벼운 한마디로 잠시나마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즐거운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재미로 보는 직장인 MBTI

(출처: 잡코리아)

논리적이고 꼼꼼한 # 엄격한 조교	신중한 자발적 아싸 # 솔로 플레이어	말랑말랑 융통성 있는 # 능구렁이	직장 내 분위기 메이커 # 핵인싸
ISTJ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세상의 소금형 — ISTP 상황 적응 능력이 뛰어난 백과사전형 — ESTJ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가형 — INTP 비평적 관점의 아이디어 뱅크형	ISFJ 협조적이며 성실한 상사 뒤편 권력형 — INTJ 전체를 조망해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자형 — ISFP 따뜻한 감정을 지닌 성인군자형 — INFP 이상적 세상을 만들어가는 잔다르크형	ENTJ 비전을 갖고 타인을 인도하는 지도자형 — INFJ 통찰력이 뛰어난 예언자형 — ENTP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발명가형 — ENFJ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언변 능숙형	ESTP 다양함을 선호하는 활동가형 — ESFJ 친절함과 봉사 정신을 지닌 친선 도모형 — ESFP 모두의 분위기를 살리는 사교형 — ENFP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스파크형
			

이제는 기술로
'알아서 잘 딱 할' 정도로 쉽고 센스있게!

선제적 대응기술을 말하다

#선제적 대응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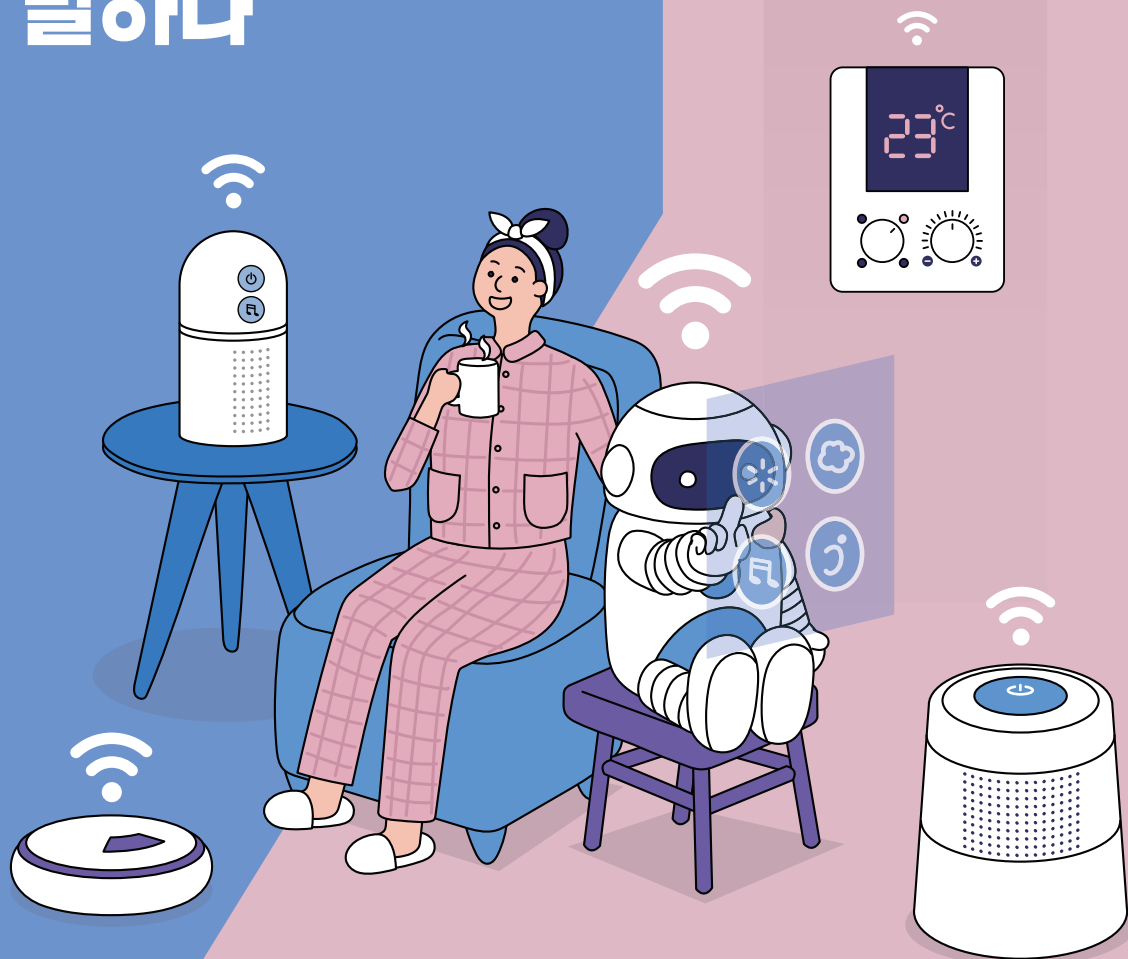
#정보 제공

#맞춤 조정

#예측 수행

#공공서비스

#소비자만족





지금까지의 기술은 인간이 요구한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요구가 있기 전에 필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바로 '선제적 대응기술'이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선제적 대응기술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선제적 대응기술

요구하기 전에 미리 제안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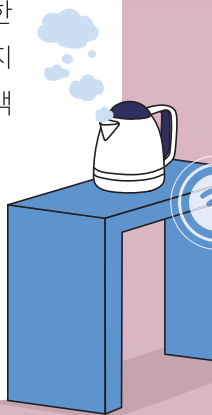
“좀 갑갑한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겠어”, “이따 외출할 때 우산을 챙겨야 할까”. 만약 이러한 순간에 기술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파악해 미리 제공한다면? 고객의 사용 흐름을 읽음으로써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 나아가 고객이 필요로 하기 전에 고객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미리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을 해소하는 기술을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는 '선제적 대응기술(Proactive Technology)'이라고 명명했다.

선제적 대응기술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마트홈'을 들 수 있다. 스마트홈이란 가전제품을 비롯한 집 안의 모든 장치를 연결해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삼성물산의 '웰컴 투 래미안' 시스템은 거실에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조명을 켜고 홈 패드에 정보를 띄우는데, 상황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기능이 작동된다. 예를 들어, 잠에서 깨어나 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되면 오늘의 날씨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지만, 외출 후 귀가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부재중 방문자나 단지 내 신규 공지사항 등을 알려주는 식이다.

#정보 제공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적시에

선제적 대응기술은 소비자와 상호작용할 때의 주동성을 기준으로 △정보 제공 △맞춤 조정 △예측 수행이라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단계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서로 혼합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주요 결과물로 채택했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먼저 선제적 대응기술의 1단계는 고객의 사전적 대응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다. 사용자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로 분석한 결과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LG전자에서 가전제품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PCC(Proactive Customer Care)' 서비스가 그 예다. 이 서비스는 가전제품에 탑재된 센서로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다. 이때 문제가 감지되면 앱,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사용 패턴을 파악해 세탁기의 통세척 시점, 냉장고 정수기의 필터 교체 시기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사후 관리만이 아니라, 사전적 대응을 하기 위해 상황에 맞춘 정보가 적시에 전달 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 조정 #예측 수행

‘이럴 땐 이렇게’를 넘어 ‘알아서 척척척’

선제적 대응기술의 2단계는 사용자에게 맞춰진 기능이 맥락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고 구현되는 단계다. ‘IFTTT’ 서비스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If This, Then That)’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동작이 수행되는 기술이다. 가령, 휴가를 떠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시간대에 따라 집 안의 조명을 켜고 끄는 것은 물론, 집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TV나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기능처럼 사용환경에 따라 제품이 스스로의 기능을 켜고 끄는 선제적 대응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선제적 대응기술의 마지막 단계는 사용자의 필요를 예측해 해당 기능을 사전에 수행하는 단계다. 예측 수행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영역은 자율주행 분야다.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로 포괄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들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이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 기계장치 제어를 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승객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실내에 탑재된 각종 센서로 운전자의 심박호흡·스트레스 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만약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내 환기를 유도하고 운전자에게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운전자의 스트레스 수치에 따라 조명·향기·음악 등 차량 내부 분위기를 자동으로 바꾼다.



#공공서비스 #소비자만족

궁극적인 소비자만족을 추구하다

선제적 대응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선제적 대응기술을 공공서비스 영역에 적용한다면,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 추이나 통신비·의료비 등의 연체 현황 같은 정보들이 서로 연계되어 보다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다. NH가 2023년부터 시행할 공공임대 전용 스마트홈 서비스가 그 예다. 만일 고령의 입주자가 일정 시간 이상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거나, 입주민의 수도 사용량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관찰될 경우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식이다. 선제적 대응기술은 고객이 불편을 느낄 기회도, 위험을 감지할 여지도 주지 않는다. 기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궁극적인 소비자만족을 실현하려는 것이 바로 선제적 대응기술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객이 환호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선 그들의 행동을 분석해 데이터로 추적

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확보한 다음, 타이밍에 맞는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선제적 대응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특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기술에 대한 다방면적인 연구와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Proactive Technology 이런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소비자트렌드 분석가

Consumer trends Analyst



무슨 일을 하나요?

소비자의 행동 및 심리와 시장 환경을 분석해 소비트렌드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사회의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즐긴다
-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 등 정보 전달 능력이 뛰어나다

도움이 될 자격 Tip

사회조사분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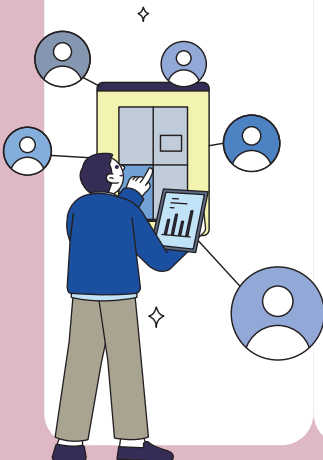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직종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격입니다.

진출 분야

기업 내 소비자상담실 또는 상품기획실, 리서치기관 등

사물인터넷(IoT) 전문가

Internet of Things(IoT) Expert



무슨 일을 하나요?

네트워크를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과 환경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에 흥미가 있다
-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다
-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도움이 될 자격 Tip

빅데이터분석기사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하나로, 다양한 산업에서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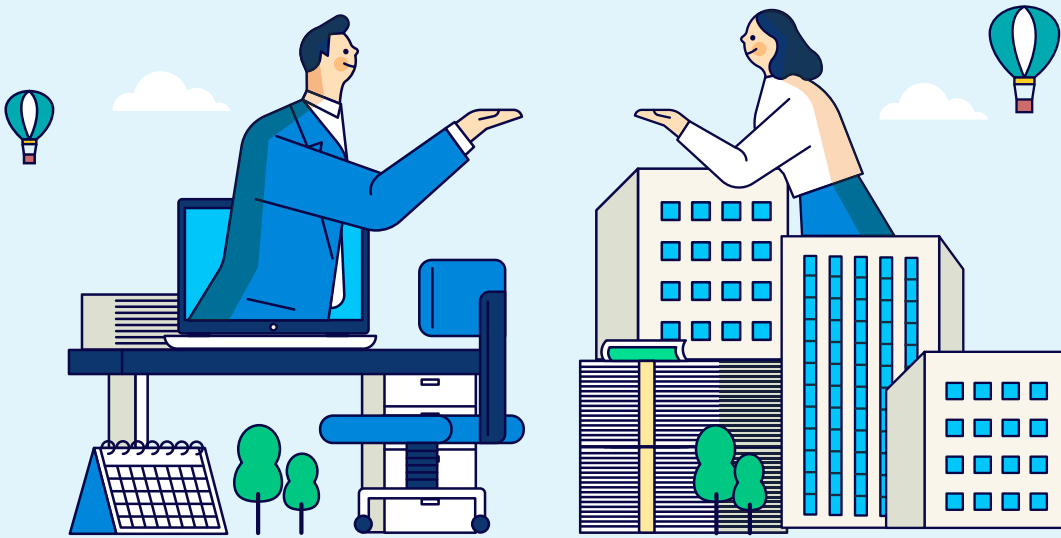
진출 분야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안 등



평판 조회, 이직의 새로운 관문

신용등급만큼이나 평판등급이 주목받는 시대다. 전 직장에서의 근무는 어땠는지, 업무 능력은 어떤 수준인지, 동료들과의 관계는 원만했는지 등 이제 성공적인 이직에는 지금까지의 이력만큼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내 평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직 당락을 가르는 '평판'

평판 조회(Reference Check)란 채용회사가 지원자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알아낼 수 없는 사항들을 지원자의 이전 직장 상사, 동료, 인사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는 작업을 뜻한다. 채용 후보자 몰래 알음알음 전화를 돌려 정보를 수집하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 평판 조회는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양성화되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대상이 임원급 관리직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대리·과장급까지 확대된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이처럼 평판 조회는 제법 보편적인 채용의 한 과정이 됐다. 잡코리아가 639개 기업

인사·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의 기업이 경력직 채용 시 평판 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채용률이 높아지다 보니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다. 신용등급만큼이나 '평판등급'이 중요해졌다는 말이 자주 들려온다. 실제로 평판 조회 결과가 채용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사 결과 기업의 61%는 평판 조회 결과가 탈락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답했으며, 59%는 합격의 근거가 된 사례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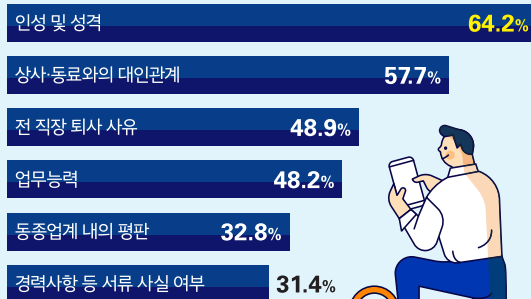
평판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평판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블라인드 방식'과 '오픈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블라인드 방식'은 후보자 모르게 평판을 조회하는 것인데, 개인정보가 중요시되면서 최근에는 지양되는 방법이다. '오픈 방식'은 후보자가 자기 평판을 조회하게 할 대상자를 직접 정하고, 기업이 그 대상자에게 접촉해서 평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대상자는 보통 상사나 동료들로 이뤄져 있다.

기업 대신 평판 조회를 해주는 대행 플랫폼도 등장했다. 이들 평판 조회 플랫폼은 채용후보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입력해 설문지를 전송하고 응답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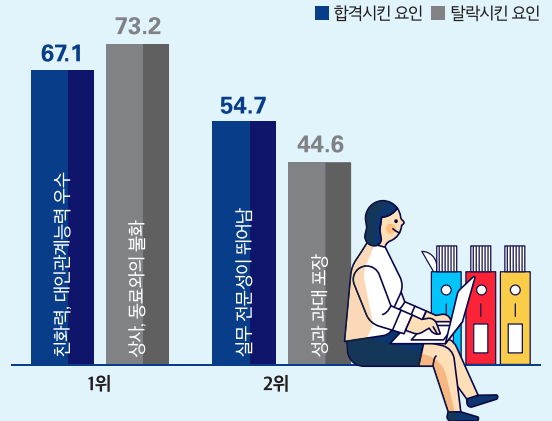
그렇다면 채용을 앞둔 기업들은 평판 조회를 통해 후보자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 사람이 기업 369개 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에 대한 답은 '인성 및 성격'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가 57.7%로 뒤를 이었다.

평판 조회로 알고 싶은 것은? (자료 : 사람인, 복수응답 가능)



인간관계, 이직 시 경쟁력이 된다

평판 조회 후 합격시킨 요인과 탈락시킨 요인(%)



한편, 채용 당락을 가르는 평판 조회 가장 큰 요인은 직장 내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평판 조회를 통해 탈락하는 경우의 1순위 요인은 '상사·동료와의 불화'였다. 이는 성과를 과대 포장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평판 조회 후 후보자를 합격시킨 경우도 '친화력,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업무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합격 요인이 됐다는 응답은 그 뒤를 이었다.

오늘날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로 인간관계를 꼽는다고 한다. 하지만 평화로운 회사생활을 영위하고, 심지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건 필수 요소가 됐다. 평판이 경쟁력인 시대, 한 번 더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홍보미디어실(052-714-8196)로 문의

투명과 청렴의 시대적 함의



한 사회에서의 화두가 무엇인가를 통해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화라는 말이 대세라면 그 사회는 아직 독재 치하이거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가령 근 1년 가까이 전쟁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평화가 간절한 바람일 터이다.

돌이켜 보면 대략 민주화가 진전되어 가면서부터 우리 사회에 청렴·투명 등이 차츰 익숙한 말로 다가

왔다. 우리에게도 그 가치들이 본격적으로 필요해 졌다는 뜻이다. 즉 우리 사회에는 아직 상당한 정도로 부패가 있고 투명하지 못한 요소들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투명과 청렴이 요구되는 사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3대 요인으로서는 흔히 기아(굶주림), 폭력(전쟁과 폭압), 괴질(유행병)이 꼽힌다. 가난의 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 개인적 고통

을 넘어 천재지변에 따른 흉년으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례가 술하게 기록되어 있다. 폭력에 의한 불행도 널리 퍼져 있었다. 개인 간의 작은 다툼에서부터 대소규모의 전쟁으로 다치고 죽어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이유도 모른 채 사람을 거꾸러뜨리는 괴질의 유행은 공포 그 자체였다. 중세에 유럽 전체를 휩쓸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희생시킨 페스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고대와 중세를 통해 인류를 고통스럽게 한 기아와 폭력과 괴질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생산 총량이 획기적으로 커졌다. 가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초였다. 그러나 문제는 불평등이었다. 부익부 빈익빈은 그 이전부터도 관찰되는 인간사회의 기본 모순인데 생산력 확대와 함께 그 격차가 더 커진 데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사유재산의 철폐를 주장하는 소련혁명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의 불평등은 해결되지 못한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절대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난 인류의 비율이 대폭 커진 것은 사실이다.

괴질 또한 과학혁명으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고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졌다. 전쟁은 아직 근절되지 않은 채 그 규모가 커졌으나 총체적으로 그 빈도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자본주의 발달과 시민혁명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보편화 되어 갔다. 아직도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는 독재와 압제의 고통이 지속되

고 있으나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는 인류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우리 역시 크게 보면 인류사의 전체 도정과 궤를 같이해 왔다. 원초적 불행의 3대 요소였던 기아와 폭력과 질병을 이제는 거의 극복하였다. 근대화의 핵심이라 할 민주화의 과제도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잘 수행해 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를 들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일상생활 속의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하나 절결하고 넘어서려는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청렴과 투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도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선진사회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한다.

돌아보면 이런 선진사회를 일찍부터 내다보며 우리를 일깨운 선각자가 있었다.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이다. 그는 일찍이 나라를 잃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 한반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우자고 동포들을 일깨우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는 자유롭고 평등한 진정한 민주독립국가를 내다보며 정직을 강조하고 그런 개인들이 어울려 사는 신용사회를 선망하였다. 정직·신용·청렴·투명 등은 사실 한 묶음의 어군이다. 선진국 수준의 생산력과 민주주의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들이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청렴과 투명을 강조하고 그 온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HRD NEWS

2023 January vol. 319

01

HRD

2022 HRDK 경영혁신대회 개최



공단은 12월 5일 울산 본부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심사·포상하는 ‘경영혁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대회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포상했는데, 총 13건의 시상과 4건의 경영혁신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담당 직원들이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직접 발표해 현장감 있는 사례들을 공유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선정된 우수사례 외에도 약 250건 이상의 우수사례 및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혁신대회가 공단 임직원들의 적극행정과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무자들로부터 발굴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2

HRD

공단, 2022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 사회적가치 부문 최우수상 수상



공단은 12월 15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사회적가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을 수립해 △청렴 상생 자금 도입 △공공재정 환수전담반 신설 △사회적 가치 책무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제도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공단 이성경 상임감사는 청백리상을 받았고, 8일에는 한국감사협회로부터 자랑스러운감사인상, 청렴윤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기쁨을 더했다. 이성경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공단 임직원 모두가 조직 내 청렴 윤리 문화 확산과 일자리 창출,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의 감사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3 HRD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공단은 12월 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2022년 국가직 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일선 현장에서 사업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2년에는 52개 기업과 13인의 컨설턴트 사례가 접수됐고, 서면 및 발표심사를 통해 12개 기업(최우수 5개소, 우수 4개소, 장려 3개소)과 3인의 컨설턴트(우수 2인, 장려 1인)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들의 국가직 무능력표준 활용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어, 채용·훈련 등 인사관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국가직 무능력표준이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04 HRD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과제빵 기술 전문가 이창민 대표(하레하레) 등 3명을 지난 10~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1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2년 12월 기준 190명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이다.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독보적인 제과제빵 제조 방법 개발로 200종류 이상의 빵과 과자를 만드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제과제빵 기술 전문가 하레하레 이창민 대표가,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에는 CCTV 활용 정보통신공사와 재난·안전 제품 CCTV 오토리프트 제조 분야 전문가 (주)오티에스 송무상 대표가, 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는 제품을 원형 그대로 검사하여 완제품의 완성도, 재질, 균열 상태, 결함 유무 등을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 기술 서비스 전문가 (주)한솔인텍 조보익 대표가 선정됐다.

독자 여러분의 2023년 새해 소망을 알려주세요!

참여기간
1월 30일(월)까지

2023년 계묘년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HRD KOREA」 이번 호 테마인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 상품(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vol.319 HRDKorea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왼쪽의 QR 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만드는 HRD Korea! 사업 참여 스토리 공모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사업에 참여 경험 이야기 등을 사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훈련 참여 스토리, 국가기술자격 취득 스토리 등...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 분량 A4용지 1장 내외(글자수 약 2천자)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응모 기한 1월 30일(월)





HiRD Korea

2022년 12월호
당첨자

—
2022년 12월호 의견 일부를
요약해 전합니다.

배윤지 | 문지영 | 김진아 | 배영만 | 홍정현 | 강주찬 |
김건완 | 김병훈 | 정창재 | 박민우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직업과 자격 트렌드 기사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인생이모작을 위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강주찬

기술인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면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기술인들의 성공사례와 기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재

청년 해외진출 수기를 통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일깨워주는 사례들을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에서 지원하는 해외취업 성공사례를 고정적으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건완

4차산업시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에 상응한 인재육성전략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우

한 해 동안 HRDK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한 뉴스들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2023년 첫 호에서는 HRDK의 힘찬 희망 그리고 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김병훈



HiRD Korea

이번호는 어떠셨나요?

QR코드, 이메일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당첨자 안내를 위해 이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신정	2	3 ·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원서접수(1.3~1.6)	4	5 ·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빈자리 원서접수(1.5~1.6)	6	7
8	9 · 기능장 제73회 필기시험 원서접수(1.9~1.12) ·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1.9~1.12)	10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1.10~1.13) -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	11	12	13	14 ·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
15	16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 접수(1.16~1.19) -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 자 · 제60회 변리사 1차 원서접수 (1.16~1.20) · 지방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 (1.16~1.27)	17	18	19	20	21
22 설날	23	24	25 · 과정평가형 정기 제1회 외부평가 원서접수(1.25~1.30)	26	27	28 · 기능장 제73회 필기시험 ·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1.28~2.1)
29	30 ·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원서접수(1.30~2.3) · 제21회 경매사 1차 원서접수 (1.30~2.3)	31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미리 알아보는 2월 일정	○ 국가기술자격	○ 국가전문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1.28~2.1) ·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2.4) · 기사 제1회 필기시험(2.13~2.28) ·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2.20~2.23) ·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원서접수(2.20~2.23) ·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2.20~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원서접수(1.30~2.3) · 제21회 경매사 1차 원서접수(1.30~2.3), 1차 빈자리 원서접수(2.16~2.17) ·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원서접수(2.6~2.10) · 제40회 관세사 1, 2차 원서접수(2.6~2.10) · 문화재수리기능자 원서접수(2.13~2.17) ·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2.18) ·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원서접수(2.20~2.24) · 제4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1차 원서접수(2.20~2.24) ·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차 원서접수(2.20~2.24) ·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빈자리원서접수(2.23~2.24) · 제21회 경매사 1차 시험(2.25)
	<p>*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2.20~2.23, ②3.21~3.24에 2번 접수하며, 2021년 제123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2.20~2.23에만 원서접수 가능</p>	<p>* 부득이한 경우 시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p>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궁금하다면 **보조금24에 ON하세요!**

맞춤 혜택이 도착했습니다!



보조금24 이용방법



Step 0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Step 02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
(최초 1회)

Step 03



정부혜택
확인·신청

선순환의 HRDK로 기술한국의 미래를 이어가다



기술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회와 기술

HRD 뉴 노멀, 인적자원개발의 새 표준을 마련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로 인정받는 미래를 위해 내 일(Job)과 내일(Tomorrow)을 만들어 갑니다.